



◆ 시교육청에 절감해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인천부평중학교 '꿈이 자라는 교실'

“추워도 꿈은 멈추지 않는다”

인천부평중, 꿈이 자라는 교실 열기 높아

지난 17일 저녁, 매서운 겨울바람과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도 부평중학교(교장 최성용)는 '꿈이 자라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진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12월 23일까지 모두 3차례 걸쳐 운영되고 있는 '부평중 꿈이 자라는 교실'은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에 교실을 개방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2차 지필평가를 앞두고 있는 요즈음은 독서실이나 학원 등과 같은 사설 기관을 이용하는 대신, 저녁 9시까지 난방 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 교실을 이용하면서 감독교사로부터 교과 관련 개별 지도도 받을 수 있어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새로 부임한 최성용 교장은 지역사회 특성상 맞벌이 가정이 많아 저녁식사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김밥과

빵, 우유 등을 제공하고 있어 특히 학부모들이 반기고 있다.

이날 늦은 시간까지 학생들 지도 감독하던 오승호 교감은 "처음에는 저녁시간에 학교로 다시 등교하는 것에 대해 다소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많았지만 담임교사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로 더 전 학생들 사이에 독서실보다 공부하기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 왔다는 서보민 학생(2학년)은 "독서실비도 만만치 않은데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어서 어머니께서 좋아 하신다"며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감독선생님께 개별지도도 받을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성적도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무엇보다 돋보이는 부평중 '꿈이 자라는 교실'은 저녁시간에 공부할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를 개방하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학교교육의 내실화에도 더욱 기여할 전망이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학교자율화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시교육청, 교육토크쇼 진행

인천시교육청은 15일, 초·중·고 학교별 교장·교감 및 담당 부장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천생학습관에서 '학교자율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연구학교보고회를 갖고 재미있고 참신한 교육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그 동안 학교자율화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해 초·중·고 6개 학교를 정책연구학교로 지정·운영한 1년간의 연구내용에 대한 결과가 발표됐다.

김희영 교사(부현초교)는 보고회를 토크쇼로 진행하면서 학교자율화의 개념을 비롯해 학교운영

위원회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 변경 운영, 자율화된 학교의 학생 생활 등 단위 학교별 학교자율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미란 담당관(교과부 학교자율화 담당관실)의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이란 주제의 특강 후에는 종합토론 시간을 마련해 퀴즈를 풀며 학교자율화를 즐겁게 이해하고, 연구학교 발표 내용 및 교과부 특강 관련 학교자율화에 대하여 깊게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주도 등 타 시·도의 관계자도 다수 참석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자율화에 대한 노력

과 보고회 방식을 보며, 한 발 앞선 인천교육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성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 대행은 인사말에서 "학교자율화의 핵심은 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합의 과정에 있으므로, 학교자율화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 관리자와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 교육공동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자율화 구현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선배들에게 배운다

인천기좌교, 대학입학 멘토링 실시



◆ 인천기좌교는 선배기간 멘토링제 운영으로 대학입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가좌고등학교(교장 박재민)는 '1596' 학력향상 운동과 대학입학전략팀 활동의 일환으로 2010 수시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3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적 대학입학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했다.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3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초로 대입 합격 전략과 다양한 대입 전형방법 준비법을 설명해줌으로써 후배들의 실제적인 대입정보 습득과 면학의지 고양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아울러 학부모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대입 멘토 선배들을 접한 후배학생(이슬기, 경인고대 진학 희망)은 "선배들이 친절하고 진지하게 학생의 입장에서 대입정보와 자신의 대학진학 성공담을 들려주고, 문의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들려주어 대입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데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 이런 정감있는 멘토링 기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인성과 학력의 조화, 행복한 우리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좌고는 대학입학전략팀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시키고, 선배와 후배가 대학입학을 통한 자아실현의 희망과 보람을 느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도록 대입합격생 중심 대입멘토링활동을 기발고사 이후뿐만 아니라, 동계방학과 새 학기 초에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소비자상담 : 1644-4415 www.taesanbio.com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세요!

-한국형 음식물 처리기 국내 최초 개발
-국내 유일 100% 국산 제품
-음식물 쓰레기 싱크대에서 즉시처리

가족건강 이제 대신 케어사로 Care하자

Model : KS-8000

1.4L 용량 1400W 전력 100% 국산 제품



KS-6000

KS-8000

Q&A 알려주세요!

Q1. 대입-케어사런 무엇인가요?

A. 한국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100% 국산 제품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입니다.

Q2. 처리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싱크대 배수관을 통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Q3.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1000W 전력으로 1시간 사용 시 약 100원 정도입니다.

Q4. 설치 무료인가요?

A.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무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산

태산바이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길동 577-4번지 신길빌딩 404호

소비자상담 : 1644-4415 팩스 : (032)832-0304

지사 대리점 모집

‘FUN-FUN 한 학교’

인천인수초, 레크리에이션·웃음치료 자격증 과정 수료식

인천인수초등학교(교장 이기찬)는 학교특색사업으로 '미래 사회 글로벌 리더를 위한 HS(Humor, Smile)로 HS(Happy, School)를 가꾸어 가는 Fun-Fun 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특색사업과 연관 지어 평생 학습실에서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의 하나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 웃음치료' 과정을 운영하고, 17일 마지막 강의를 갖고 수료식을 실시했다.

국제유니버시티평생교육원 원장 이광재 박사를 강사가 지난 10월 16일부터 진행한 '레크리에이션 & 웃음치료' 강좌는 웃음의 효과를 통해 웃음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머의 업그레이드 방법과 레크리에이션의 실제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할 뿐만 아니라, 칭찬을 통해 진정한 웃음을 찾게 하여 학습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내용으로 10주 동안 진행되었다.

이기찬 교장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우리 교육도

리더십을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자, 학교폭력의 가장 적극적인 예방법인 웃음을 통해 즐거운 가정과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키워 사랑과 꿈이 담긴 행복한 가정과 학교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이번 강좌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받게 되는 한 학부모는 "왕어려웠던 웃음을 찾았고, 배운 내용을 가정과 사회에 활용하여 웃음이 가득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좋은 웃음 바이너스가 되어야겠다."면서 강좌가 자신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인천주안도서관 '신나는 겨울방학특강'

인천주안도서관(관장 김계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프로그램 및 공연을 마련하여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내년 1월 4일~27일까지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먼저 1월 4일~8일까지 5일간 오전 9시부터 12시50분까지 '3세대 배움터 도서관 학당'이 운영된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어르신이 함께 하는 서예, 사자시화 프로그램과 녹색성장프로그램인 '생태교실' 및 '재활용 창작물 만들기' 수업을 통하여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1월 18일~20일까지 운영되는 미술특강에서는 5세 이상의 유아와 엄마가 함께 손가락운동을 통해 감성을 자극하는 '쫄쫄라, 쫄쫄라 점핑클레이'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한 '파스텔로 그려보는 세상'이 진행된다.

1월 25일~1월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한 신기한 소리를 실험해 보는 '신나는 과학 실험' 특강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1월23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바다 속 모험 가족사랑 인형극인 '도치의 모험'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인천시교육청, '녹색성장시대 학부모 역할' 특별강좌

인천시교육청은 '2009학년도 저탄소 녹색성장교육'의 하나로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성장시대 학부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특별 강좌를 가졌다.

시교육청 관진수 교육감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끊임없이 생각해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말하고, 저탄소 녹색생활의 전도사로서의 학부모 역할을 강조했다.

'소비자 시민모임' 우혜경 대

위협력팀장은 강연을 통해 소비생활의 주체인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와 생활양식 변화 없이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어렵다며 소비영역에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친환경 소비생활(eco-friendly lifestyle)선택이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지역교 육청별로 '녹색생활 특별강연 릴레이 강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